고대의대 뉴스레터

2015 No.16 7.8

발행인_김효명 · 발행처_고려대학교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 주소_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 TEL_02-920-5794 · E-Mail_hkintheworld@korea.ac.kr 홈페이지_http://medicine.korea.ac.kr · 발행일_8월 1일 · 격월간

KU-The Future 구현을 위한 총장과 의대 교수 간담회,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김효명)은 의과대학 교수와 총장 간담회를 6월4일(목) 오전 7시30분부터 본관 유광사홀에서 개최했으며, 총장-의대 주임교수와의 간담회 또한 6월11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가졌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대형 조직을 총장 혼자의 힘으로 이끄는 건 무리가 있다"며 "구성원이 같이 고민하고,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므로 같이 나아가기 위해 소통하자"고 간담회의 문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총장과 의대 교수와의 만남은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약리학교실 신경호 교수는 기초교실 교수 충원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영상의학교실 성득제 교수는 안암병원 신관건축과 첨단융복합센터 건립에 관련한 의견을 구했다. 또한 보건과학대학에서는 소속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주임교수와의 간담회에서는 의대의 교육 시스템과 의대 교수의 특수성을 배려한 연구년 제도 등의 변화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임상과에 행정직원 요청 등의 실질적인 개선이 시급한 논의도 오갔다.

참석한 한 교수는 "그 동안 습관처럼 이미 굳어져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함을 알면서도 잘 바뀌지 않는 행정 관행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대화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고려대학교 교무처에서는 '미래를 열고, 미래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부와 교원들 간 쌍방향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리를 매 학기별로 마련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의학발전기금 기부

》 기간: 2015년 5월28일~2015년7월13일
》 순서는 기부(약정)일자 기준임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5.05.28	전지민	교우	10,000,000
15.06.04	김정식	내과학교실	100,000,000
15.06.10	김종숙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과	3,000,000
15.06.17	김철민	교우	6,800,000
15.06.29	이승호(43회)	이비인후과학교실	3,000,000
15.07.01	임춘학	교수학습지원센터	5,000,000
15.07.06	이천환	외과학교실	20,000,000
15.07.06	김해준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40,000,000
15.07.06	김순덕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40,000,000

약정일	기부자	구분	약정액
15.07.06	이은일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40,000,000
15.07.06	최재욱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40,000,000
15.07.06	안형식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10,000,000
15.07.06	윤석준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10,000,000
15.07.06	천병철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10,000,000
15.07.06	이원진	발전기금 / 예방의학교실	10,000,000
15.07.08	민경기	임플란트연구소	3,000,000
15.07.13	김해준	보건대학원	7,000,000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육목표

교육목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자유 · 정의 · 진리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윤리의식, 전문성,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1) 성숙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
2) 최선의 진료와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가
3) 세계시민정신을 갖추고 보건의료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

의대생리포트

의대생의 특별한 방학 보내기

글 • 사진 **호의령 송혜림** 기자

다른 학부에 비해 학기 중의 학업 부담이 큰 만큼 의대생에게 방학은 더욱 더 특별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막상 정신 없는 학기를 보내다 보니 방학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채 방학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대생이기에 할 수 있는 많은 방학 중 활동들, 미래 의사를 꿈꾸며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미리 숙지하여 조금 더 알찬 방학을 계획해보자. 외부 기관을 통한 활동도 많지만, 교내 동아리 및 고대의료원을 통한 프로그램도 많으니 동기들과 함께 참가한다면 더욱 뜻 깊은 추억이 되리라 생각한다.

카당/라파엘클리닉 해외 의료캠프 학생 파견

매년 여름 방학 동아리 카당을 주축으로 라파엘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으로 가는 의료 봉사이다. 주로 카당 본과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나 카당이 아닌 학우 및 예과생도 참가할 수 있다. 함께 가시는 선생님들의 진료 보조 및 예진, 약국 업무 등을 맡게 되며, 현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씻기, 칫솔질 등의 교육도 진행한다.

| 1학기말 카당 회장을 통해 각 학년 과대표에게 공지

| 2015년 7. 25 – 7. 31 진행

CMF몽골 의료 봉사활동

매년 여름방학 대한영상의학봉사회에서 주최하는 몽골 의료 봉사활동으로, 영상의학과 김윤환 교수님을 통해 동아리 CMF 학생들 및 지도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나 다른 학생들도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무료 초음파진료 및 영상의학 심포지엄이 진행되며, 2015년에는 러시아 의과대학생들도 함께 참가하여 교류를 하였다.

| 1학기말 CMF 회장에게 문의

| 2015년 7. 5 – 7. 9진행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환경성질환센터 주최 맑은 숨 캠프

고려대학교 환경보건센터의 주최 하에 매년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4년간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의예과 신입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나, 타과생도 참여 가능하다. 천식 및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 학생들을 인솔하고 질환에 대한 교육과 야외 활동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을 직접 맡게 된다.

| 여름방학 직전 교내 포스터를 참고하거나 이전 참가 선배들을 통해 문의

| 2015년 8. 3 – 8.5 진행

고대의료원 소아청소년 당 뇨교실 주최 참살이 건강 캠프

소아 당뇨 환아와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는 캠프로, 의대생 봉사자는 메인 캠프인 2박 3일 동계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 본과 2학년 학생이 주축이지만 다른 본과생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팀에 소속되어 혈당 체크를 주로 담당하며, 혈당 조절과 당뇨 의학 지식 강연 보조 역할을 맡게 된다. | 2학기말 봉사자 모집 포스터를 통해 문의 | 2015년 1. 9 – 1. 11 진행

세계의대생연합 주최 교환학생 프로그램 (SCOPE 및 SCORE)

매해 여름 · 겨울 방학에 실시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협정을 맺은 국가간 학생을 맞교환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본과 1, 2학년 및 예과생의 경우 SCORE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학교의 연구실에 출근하게 되며, 본과 3, 4학년의 경우 SCOPE 프로그램으로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협정 국가 리스트는 매년 갱신되며, 지원 후 선발을 거쳐 원하는 국가 및 시기, 분과 및 선호 지역에 따라 학교가 결정된다.

| 각 과대표를 통해 해당 학년에게 2학기 중 공지

| 2015년 SCORE 오스트리아 그라츠 대학교의 경우 7. 5 – 7. 31 진행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윈터스쿨

매년 겨울방학 구로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주최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본과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5일간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며 수업 후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다양한 영상장비를 이용한 실제 의료 현장도 견학할 수 있다.

| 학기말 과대표를 통한 공문에 따라 이메일로 지원서 제출

| 2015년 1. 5 – 1. 9 진행

올해 맑음 숨 캠프장을 맡은 이규일(본과 2학년)군은 캠프를 직접 준비한다는 점과 환아들을 교육하는 과정 자체만으로 값진 경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자의 경우 영상의학과 윈터스쿨에 참가하였는데, 학교 수업에선 영상 이미지를 보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캠프에선 CT 및 MRI 사진을 직접 교수님과 소통하며 시리얼로 볼 수 있어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냥 쉬면서 보내기엔 방학은 너무나 소중하다. 추억도 남기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보자.

인물포커스

의대생을 위한 착실한 수업준비와 완벽한 의사실기시험 준비로 합격률을 높이는 교수학습지원센터, 김중규 선생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업무 소개 포함)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중규입니다. 2005년도에 입사하였고 담당하고 있는 일은 교수학습지원센터 행정업무, 의사실기시험 관련 실습 및 수업지원, KALS, BLS, 시뮬레이션 교육지원, 실습실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을까요?

실습실이 3층 OSCE실습실과, 4층 임상수기센터로 분리되어 있어 수업 준비를 할 때나 관리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행정과 실습지원등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겹칠 때 면 같이 일 할 수 있는 짝꿍 같은 동료가 한 명 더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언젠가 꿈은 이루어 지겠죠? ㅋㅋ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요?

열심히 준비한 실습에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밝은 얼굴로 수업이 끝나고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를 건네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학생들 국가고시 실기시험 성적이 좋을 때 열심히 학생들을 지원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고마운 분이 있다면요?

무엇보다 항상 저희 센터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아껴주시는 채성원 센터장님과 센터식구들 김혜림 선생님, 장신애 선생님, 조규빈 선생님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가 힘드네요.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대에 많은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오?

교수학습지원센터 행정 업무 및 담당하고 있는 수업지원업무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더불어 항상 의대 선생님들과 마음을 열고 소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인물포커스 추천 누구? 이유는?

의과학연구지원센터에 김석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지고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힘이 되는 동료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

인물포커스 릴레이

교수학습지원센터 김중규 선생님 ▶ 의과학연구지원센터 김석 선생님

기획특집

고대의대–오송 첨복단지 의료산업화,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드라이브'

공공–민간 상생협력 방점,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동력 로드맵 본격화 글로벌 R&D허브 육성으로 창조경제 요람, 국부(國富) 창출 선봉

고려대 의과대학,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광역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송–세종–안산 중개연구 기반구축 심포지엄을 열어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네트워크 및 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오송첨복단지이사장 **선경** (외과학교실 교수)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 이하 첨복단지)이 지속적인 연구지원 인프라 투자를 통해 글로벌 R&D허브로 첨단의료산업을 선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는 2038년까지 약 4조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오송 첨복단지는 바이오 신약과 BT기반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사진제공 : 오송 첨복단지

포스트 IT 시대아이콘, 의료산업(HT) 급부상
오송 첨복단지, 데스밸리 극복 성공모델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의료산업은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정부와 산업계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의료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이 맹추격하면서 여느 때보다 의료융합산업을 개발–유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도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화 집적단지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보건의료기술의 고도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오송 첨복단지는 연구개발의 가치사슬이 자주 단절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의료산업의 핵심 추진체로 구축한 첫 모델로, 기초 연구와 시제품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실제 산업화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사장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 Death valley)'을 극복하는 모범이자 성공사례로 손꼽히며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등공신으로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日·中·싱가포르
'HT 코피티션 생태계 구축' 선도
신약, 의료기기 등 4대 핵심 센터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오송 첨복단지는 대구경북 첨복단지는 물론 일본의 고베클러스터, 중국의 상하이 클러스터, 싱가포르 바이오클러스터 등과 협력과 경쟁이 융합된 '의료산업 코피티션(copetition)'를 맺고 본격적인 세계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시장 규모와 선도분야에 따라 규모의 전략, 니즈전략 등 맞춤형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오송 첨복단지가 경쟁력으로 자랑하는 4대 핵심센터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1섹터 공공부문 중점사업으로 국내에서 초(超)고도화, 최첨단 연구지원 장비와 시설 갖추었으며, 모든 기업에서 원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여 신속한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바이오신약 개발은 동물실험, 임상시험, 인허가와 상용화 등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의료기기는 그 어떤 아이디어도 구현 및 융합해 의료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도록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이들 특성화센터들은 주요 특화기능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학연벤처 보유기술과 역량의 조기접목 등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년 내 대규모 임상시험센터 유치 등 미래 준비 위한 대규모 투자 로드맵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등 글로벌 중개연구 최적지 홍보, 바이오산업 메카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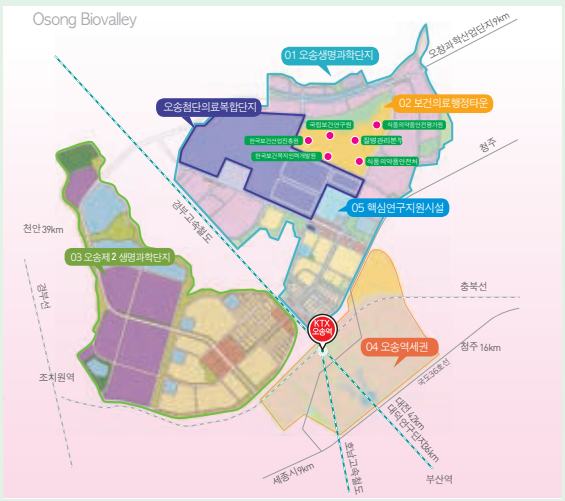
제2섹터 사업은 민간투자로 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최우선 과제다. 새롭게 연구 개발된 신약과 의료기기는 인체 안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든 임상시험을 통해해만 상용화와 산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첨복단지는 올 상반기 50병상의 연구병원을 유치했다. 앞으로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소규모의 특화된 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는 등 임상시험의 체계화 및 표준화와 임상연구병원 최적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오송 첨복단지는 연구개발 자체보다는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소 사업과 차별화되는 제3섹터사업의 주체로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부문(제1섹터, 공익성과 책임성)과 민간부문(제2섹터, 능률성과 전문성)이 어우러져 시너지를 내는 제3섹터사업의 추진체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들을 오가며 다각적인 산.학.연 업무협약을 맺는 등 상생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학술회와 토론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오송에 유치하는 것은 물론 주요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통해 오송첨복단지를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유수기업의 자본 유치에 나서는 등 직접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송 첨복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장점과 특별법의 혜택이 많은 것이 강점이다. 더구나 의료산업과 관련된 핵심 국책기관들과 인접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정부 부처들이 포진해 있다. 궁극적으로 세계적으로 중개 연구 최적지로 인정받고 있는 오송 첨복단지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안정성 및 효과성 검증, 조기 제품화 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시장선도 전략으로 가시적 성과 창출, 다양한 출구전략 마련
충북경제 4%달성 기여 등 '투자확대,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이바지



오송 첨복단지는 올해 초 대대적인 전략컨설팅을 바탕으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 마련을 비롯한 조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목표들과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강조하고, 지역경제와 고용효과, 그리고 복지창출 효과를 증명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소통하면서부터 지역민의 호응도 높아졌다. 충북경제 4%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향후 오송지역에 스타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산업화의 롤모델을 마련하고, 제3섹터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발전전략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아울러, 재단과 관광협회 협약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mice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다. 각종 학회와 학술회, 전시회 등을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C&V센터로 유치하면서 오송과 첨복단지를 찾는 방문객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식적인 방문이후에 지역관광을 연계해 힐링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재 첨복단지에 고용된 직원의 약 59%가 충북출신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등용시키며 지역인재 집중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투자확대,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오송은 물론 청주시와 충북도 등 지역사회 전반 동반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의전원 소식

'세계 100대 의대 진입 프로젝트' TFT 워크숍

의과대학은 구성원에게 희망을 전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위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전체 구성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하고자 '세계 100대 의대 진입 추진'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한 세부 TFT가 지난 5월 초 출범했으며, 6월12일(금)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7월24일(금)-25일(토) 서울 양재동 The-K호텔에서 1박2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세계 100대 의대 진입 추진'을 위해 출범한 교무혁신, 교육정책 수립, 인재 선발 및 육성, 연구지원 활성화, 호의역사, 다섯 개 TFT 위원이 참석해 분과별로 발제와 토의가 이어졌으며, 그동안 활동에 대한 결과를 공유했다.

메르스 사태는 사회병리현상, 의료인의 역할은?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 심포지엄 성료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소장 의인문학교실 안덕선 교수)는 의료계뿐 아니라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를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의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자 7월23일(목) 오후 2시 문숙의학 1층 원형강의실에서 '집단공황에 빠진 대한민국'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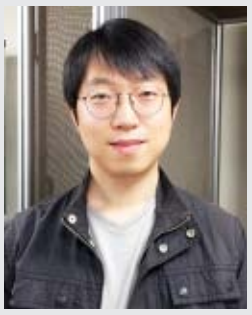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김우경 의무부총장, 김효명 의과대학장, 안덕선 좋은의사연구소장, 정지태 의인문학교실 주임교수, 한창수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메르스 사태를 사회병리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신건강의학 및 인문사회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가 참 넓다는 것을 깨달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려 의료인의 사회적 역할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질 University of the State of Amazonas(UEA) 총장단과 간담회

의과대학은 브라질 University of the State of Amazonas(UEA) 총장단과 간담회를 7월22일(수) 의료원 본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경 의무부총장, 김효명 의과대학장, 유임주 연구교류부학장이 참석해 본교 차원의 MOU를 바탕으로 한 의학 및 이공계 간 전방위 교류협력에 대한 세부 논의를 마쳤다. 양교는 외상 분야 임상적 교류, 학생 교류를 골자로 하는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과학과 유성재 학생 '마르퀴스 후즈후' 인명사전 등재 통증기전 국제학술지 게재 등 탁월한 연구성과 인정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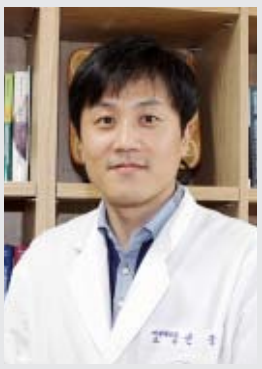


고려대 대학원 의과학과 유성재 학생은 대학원생으로는 드물게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국제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6년판 등재가 확정됐다.

유성재 학생은 우리 대학 대학원 과정에 2007년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현재 박사과정 (지도교수: 생리학교실 황선욱 교수)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박사학위 취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동안 만성 및 급성 통증기전 파악에 몰두해 왔으며, 그 연구 성과를 2010년에 네이처 자매지인 Nature Neuroscience에 게재하는 등 학위과정 동안 국제적 수준의 SCI 논문 15편 (제1저자 4편)을 발표하였다. 한편, 교내 부설연구소인 난치성질환중개연구소 (소장: 정형외과 박종웅 교수) 소속 겸임연구원으로서 신개념 진통물질 탐색에도 앞장서 특허등록 2건, 출원 1건도 기록 중에 있다.

이러한 꾸준한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아직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인명사전에 등재 수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웅 교수, ADHD · 자폐증 등 발달성 뇌질환 진단장비 개발 5년 간 184억 여 만 원 신규과제 총괄책임 맡아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선웅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구조 및 기능 기반 뇌 발달장애 진단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유용성 검증' 신규과제 총괄책임을 맡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5년 간 184억 여 만 원 연구비를 받게 됐다.

뇌 질환 전체 환자의 64% 이상이 10세 미만으로, 아이들의 경우 조기 발견 후 치료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발달성 뇌질환에 대한 뇌 구조 및 기능 분석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진단정보추출 기술을 확립해서 조기 진단 및 과학적 예후예측이 가능하도록 진단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현대사회는 출산율 감소와 한 자녀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성 뇌질환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경각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발달성 뇌질환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이 없고, 다운증후군 등 극히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유전자 검사 등 조기검사와 진단법이 미비한 실정이다.

선웅 교수 연구팀은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초소형 이동형 영상기반 뇌기능 진단장비(확산광영상 영유아 뇌혈류측정장비) 및 뇌단백질 변화측정 장비(진단용 바이오마커개발) 기반 뇌 발달장애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진단 장비를 5년 내 실용화 할 예정이다.

예방의학교실 전 교원 뜻을 모아, 의학발전기금 2억 원 기부 고려대의료원과 예방의학교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주임 교수 최재욱)은 의료원의 발전과 예방의학교실의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교실 전 교원이 뜻을 모아 7월 6일 (월) 오후 4시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기부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은 40년 전부터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오던 교실비와 교수들의 사재를 추가해서 기부하게 됐고, 의학발전기금 1억 원과 예방의학교실발전기금 1억 원으로 나눠 쓰일 예정이다.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주임 교수는 "고려대의료원과 예방의학교실이 최고의 교육 연구 환경을 갖추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학발전기금으로 내놓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김우경 의무부총장도 "교실 교원의 단체 기부는 특별한 사례로 의료원에 큰 귀감이 될 것 같다"며 "교원들의 마음을 모아주신만큼 의료원을 찾는 환자분들과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연구 진흥 전략' 신경과학교실 교원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주임교수 김병조)은 "연구 진흥 전략"을 주제로 교원 워크숍을 6월26일(금) 문숙의학관 1층 원형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신경과학 교실 소속의 17명의 전임 및 임상교원들이 모인 가운데, 김병조 주임교수가 교실의 지난 5년간 연구 업적을 타 대학과 비교하여 분석 발표했다. 박건우 교수가 교무 부학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고려대학교 교수 업적 평가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시 타 대학 교수 업적평가 기준들과 비교해 발표했으며, 김지현과 최정윤 교수가 "나는 연구를 이렇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임상 연구에 대한 접근, 연구 부정행위, 그리고 논문 경험 등을 발표했다. 끝으로 박건우 교수가 신경과 내 연구지원팀 구축안을 제시하며 연구 진흥을 위한 열띤 토론과 의견 공유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타 토의 시간에는 신경과 교원들의 연구와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시내 대학원생,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 암 컨퍼런스에서 노바티스 Merit Award 학술상 수상

고려대 대학원 의학과 핵의학전공 이시내(지도교수 핵의학과 최재걸) 학생은 제41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 암컨퍼런스 international session에서 연구 논문의 초록이 우수 연제상으로 선정되어 '노바티스 Merit Award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에서 비소세포성 폐암을 처음으로 진단 받는 환자에서 종격동 림프절 병기 결정에 있어서의 F-18 FDG 양전자 단층 촬영 유도하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세침흡인술 (F-18 FDG PET/CT-guided EBUS-TBNA)의 진단적 역할을 규명 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소세포성 폐암에 대한 보다 정확한 림프절 병기 결정을 통해,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진단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 42회 동기회, 고대의료원에 2억 6천여 만 원 발전기금 전달

의료원은 6월4일(목) 오전 10시 30분 고려대학교 본관에서 고려대 의과대학 42회 동기회로부터 2억 6천 430만 원을 기부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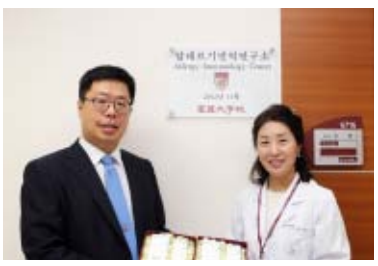
이번 기부금은 의과대학 42회 동기회에서 졸업 30주년을 맞이해 학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기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고려대의료원의 의학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동기회장 정의식 교수는 "동기들과 정성을 모아 의학발전기금을 마련해 더욱 뜻 깊고, 우리의 뜻이 모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우경 의무부총장은 "의과대학 동기회의 거듭되는 기부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진다. 그 뜻을 깊게 새겨 더욱 발전하는 고려대의료원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메디컬 이슈

아토피피부염 개선을 위한 피부 보습제 AD-II 개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유영** 교수
(알레르기면역연구 소장, 안암병원)

고려대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유영 교수(알레르기면역연구소 소장)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윤원석교수와 아토피피부염 피부 개선을 위한 보습제와 비누 (AD-Ⅱ, Ato-Defence Ⅱ) 시리즈를 개발하여 아토피피부염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피부의 만성 재발성 염증 질환으로 대개 어린 소아기에 시작하여 성인에 이르는 동안, 얼굴, 몸통, 팔, 다리 등 여러 부위에 염증물질이 과다 생성되고 면역 사이토카인이 활성화 등 면역불균형이 발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거의 대부분인데, 어린 소아나 민감한 피부에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서 그 사용이 꺼려지게 된다. AD-Ⅱ 피부 보습제는 이러한 스테로이드 제제의 사용을 상당량 줄일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절약 효과가 있다.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엑츠생명기술 회사(ACTSBIO.CO., Ltd)의 생체방어시스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AD-Ⅱ는 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유산균, 천연허브 추출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의 부패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피부장벽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뿐 아니라 민감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 가려움증과 자극을 완화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유영 교수팀은 AD-Ⅱ 아토피피부염 피부 개선 보습 제품의 약학적 조성물과 유산균 포함 제제로서 특허를 받기도 하였다. 피부에서 빨리 흡수되어 장시간 그 효능이 지속되는 AD-Ⅱ는 피부보습과 청정에 도움이 되어 민감해진 피부에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

현재 AD-Ⅱ, 수딩 로션, 베이비로션, 모이스춰 스킨, 수딩 크림과 모이스춰 비누 등 다양한 라인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알레르기면역연구소 팀은 앞으로 천연물신약 등 피부건강과 면역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을 포함하는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교육칼럼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자!

내과학교실 **임도선** 교수
(안암병원 순환기 내과)

최근에 100대 의대진입을 위해 우리대학의 역사, 교육, 행정, 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수님 들이 열의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물론 100대 의대 진입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고, 지리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초, 안암, 구로, 안산병원 교수님들의 화학적 융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토론을 기대한다.

우리대학의 미래 인재상으로 "좋은 의사"가 거론되고 있다. 물론 "좋은 의사"의 구체적인 이념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질병의 발생, 진단, 치료의 패러다임이 눈에 띄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현실에 대한 깊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변화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 년 전 필자가 예과위원장으로 재직 할 때, 가장 먼저 시행한 제도가 예과생의 멘토링시스템이다. 주기적으로 상담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발전적으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생활 멘토링으로 학생의 일상에서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성장해온 예과생들의 단기, 혹은 장기적인 구체적인 목표를 같이 논의하고 점검하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미래의사로서의 긍휼을 서로 배우는 과정이다. 멘토링의 궁극적 목표가 우리대학의 미래 인재상에 걸맞은 인물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라고 할 때, 현재의 생활 멘토링은 초기 단계의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미래 인재상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멘토링시스템을 설정 혹은 개발해야 한다.

과거 의사의 역할이 의과대학 졸업 후 병·의원에서 환자의 질병을 직접 치료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건직공무원에서 기자, 기초연구자 등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의학자 엔도 아키라박사는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억제제를 개발하여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 억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 프레데릭 밴팅박사는 인슐린을 발견하여 당뇨병의 치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만능유도 줄기세포를 개발하여 최근에 노벨상을 받은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박사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교육의 방향을 미루어 짐작해본다.

향후 10년 후 미래의학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아갈 것이다. 먼저 맞춤의료의 현실화이다. 2003년부터 10여 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던 휴먼지놈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미국주도의 유전체사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된 이후 바이오분야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다. 휴먼지놈 프로젝트 사업은 다른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차별화된 새로운 전략적 접근 방식과 실험 기술을 무기로 기존에 보유했던 지식에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유전체에 관한 데이터를 꾸준하게 창출해 내었다. 이후 맞춤의학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제로 단일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에 많은 시도가 뒤따르고 있다. 물론 아직 맞춤의학에 대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간 유전체 내 정체불명의 구성요소들 구조와 기능을 종합 판별하는 능력을 비롯하여 질병의 발생오차를 벗어나는 시퀀싱 기술력, 실제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유전자(polygenic) 이상으로 인한 것 등이 도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 후에는 이러한 과제들이 극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맞춤치료라는 꿈이 현실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IT의 발전을 통한 의학 혁명이다. CT, MRI의 모든 영상, 혹은 병리소견이 저장된 슈퍼컴퓨터가 정확한 판독으로 진단 및 예후를 제시할 수 있는 기술이 조만간 개발될 것이라고 한다. 육안의 이상소견뿐 아니라 현미경적 이상소견이 저장된 캡슐내시경이 위, 장의 이상소견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영상을 전달해 주며 필요하면 생검까지 하여 세포 유형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기술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의료기술들이다. 또한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으로 협심증을 비롯한 질환의 진단에서 나아가 우리 몸의 건강이상을 실시간으로 예고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IT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의료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장기 이식의 새로운 지평이다. 현재도 인공관절, 신장이식, 나이가 심폐이식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장기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이식은 앞으로 면역체계의 이해와 더불어 신약 등의 개발로 인해 공여자의 제한으로 인한 현재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이종장기 이식, 세포이식등 보편적인 이식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미래의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깊은 고찰은 우리대학의 미래 인재상의 설정을 고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의학의 변화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사람을 양성하려면 그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교수가 가르치는 의학은 교수에게는 현재 의학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과거의학일 뿐이다.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활동해야 하는 시기의 현재의학 나아가 미래의학을 가르쳐야 한다. 현재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임상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흐름을 볼 때 현재 한국의학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인 안암, 구로병원이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러한 미래의학을 끌고 나가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창의적인 연구중심병원에 걸맞은, 미래의학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동아리 소개

안녕하세요, 의과대학 테니스부 KMTC 입니다!

글·사진 의학과 1. 박형우

1976년에 만들어진 저희 테니스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메이저 동아리입니다. 긴 역사 덕분에 의과대학 동아리 중 졸업생 모임인 OB모임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동아리입니다. 또한 녹지 운동장과 생명대 건물 사이에 전용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전체를 통틀어 전용 코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아리로 테니스를 치고 싶을 때에는 언제나 코트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3월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개강행사 후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운동과 뒤풀이를 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5월에는 신입생 환영회 및 선후배 친선대회가 있는데, 매년 많은 졸업생 선배님들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십니다. 또한 매학기 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참가하는 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여 매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5일간의 트레이닝과 1박2일 간의 엠티 및 2박3일 간의 합숙이 진행되며, 그 이외의 방학 기간은 각자 자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을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니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며 저희 테니스부는 아마추어로서 테니스를 평생의 취미 생활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테니스부는 앉아서 공부만 해서 자칫 건강과 체력관리가 힘들 수 있는 의과대학 생활 중에 꾸준한 테니스 활동을 통해 학업을 위한 체력을 증진시키고, 선·후배·동기간 유대감을 형성하며 힘든 의과대학 생활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칼럼

MEDICAL 신경정신질환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를 꿈꾸며

뇌신경과학교실
한기훈 교수

미국에서 4년 반 동안의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마치고, 올해 3월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독립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구성원이 됨에 마음 한 켠의 설렘과 함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나는 학생시절 신경생물학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나 자신(감정, 사고, 행동)을 이해하는 연구라 생각되어 흥미를 갖게 되었다. 신경생물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생명과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김은준 교수님 연구실에 진학하면서부터이다. 신경세포 간의 신경전달 부위인 시냅스는 수백 종류의 단백질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흥분성 후시냅스(excitatory postsynapse)는 후시냅스밀집체(postsynaptic density, PSD)라는 거대분자복합체로 규정지어진다. 김은준 교수님은 PSD를 구성하는 PSD-95, GKAP, Shank 등의 주요 단백질을 최초로 동정하고 그 기능을 밝힌 연구자이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게는 언제나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다. 나는 박사과정 동안 PSD-95 단백질이 시냅스 가소성(synaptic plasticity)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해 시냅스에 대한 지식과 연구방법을 습득할 수 있었다.

내가 박사학위를 마친 2009년 전후로는, 자폐증을 중심으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의 원인 유전자들이 환자 유전체 분석을 통해 밝혀지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이들 원인 유전자 중 상당수는 시냅스 형태 및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마침 나 또한 시냅스 기초연구에서 신경정신질환 연구로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던 와중에 기회가 닿아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Baylor College of Medicine) 소속의 Huda Zoghbi 교수님 실험실로 자리를 옮겨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소속 연구자이자, 미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 회원이기도 한 Huda Zoghbi 교수님은 대표적 신경발달장애인 Rett syndrome이 MECP2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유발됨을 규명한 레바논 출신의 여성 연구자이다. 또한 의대 재학시절 발발한 레바논 내전으로 인해 미국으로 피난 온 개인사도 잘 알려져 있다. Huda Zoghbi 교수님 연구실은 15명 남짓의 박사후 연구원을 포함하여 전체 30명 정도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미국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 교수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전체 구성원을 이끌어 주셨고, 특히 박사후 연구원들에게는 실험실 운영에 관한 본인의 경험을 자주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러한 조언은 앞으로 내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박사후 연구원 과정 동안 나의 주된 연구주제는 SHANK3 유전자의 중복(duplication)에 의한 신경정신질환의 유발과 그 구체적 기전이었다. Shank3 단백질은 PSD를 구성하는 핵심 구조 단백질 중 하나로, SHANK3 유전자의 결손(deletion)이나 점변이(point mutation)는 사람에서 자폐증, 정신분열증 등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SHANK3 유전자의 중복에 의해 그 발현이 늘어난 경우도 몇몇 신경정신질환 환자들에서 발견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환자는 SHANK3 유전자뿐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유전자들이 동시에 중복되어, 정말 SHANK3의 발현 증가가 증상의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나는 먼저 SHANK3 유전자를 과발현시킨 유전자변형 생쥐를 제작하였고, 이들 생쥐가 기분장애의 일종인 조증(manic disorder)과 같은 이상 행동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이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결과이나, 사람에서도 SHANK3 유전자의 중복이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밝히는 것이 큰 숙제였다. 이를 위해, 베일러 의대가 확보하고 있는 환자 유전체 정보를 검색하였고, 주변의 다른 유전자에는 영향이 없으며 SHANK3 유전자만 중복된 두 명의 환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들 환자를 찾고 그들의 임상기록을 확인하는 몇 주간의 기다림이 박사후 연구원 과정 동안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결국 이들 환자도 조증 관련 진단을 받았음을 확인하였는데, 나의 기초연구가 임상적으로도 확인되었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학원 진학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시냅스 기초연구에서 출발하여 동물모델을 활용한 신경정신질환 연구까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기초와 임상 연구자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신경정신질환, 특히 기분장애 분야에 집중하여 성실히 연구할 것이고 학생 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발전하는 연구환경과 훌륭한 기초, 임상 교수님들이 계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출발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캠퍼스 라이프

메르스와 불안, 불안과 의학

– 의대생이 바라본 메르스 사태 –

의학과 3. **김성환**

불교에서는 불완전성이 불안을 일으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어떤 대상을 아예 인식 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불안하지 않지만 불완전하게 이해했을 때는 불안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그랬다. 메르스라는 질병이 인식조차 되지 않다가, 첫 발병 환자가 나타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신종전염병", "치사율 40%"라는 자극적인 정보가 주어지자 공포와 불안은 질병 그 자체보다도 급속도로 전염되었다. 이러한 공포의 확산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겠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은 분명할 것이다.

본과 3학년이 되어 풋내기 실습생으로 병원 실습을 돌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의학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불안을 다스리는 것'에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어떤 질환에 대해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불안과 공포는 환자에게, 때로는 의사에게까지 전염되어 오판과 실수를 범하게 한다. 우리가 그토록 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질병을 이해하려 힘쓰는 이유는 보다 완전한 지식에 가까워짐으로써 우리 마음 속의 불안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의사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환자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고, 환자와의 소통을 통해 환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미흡했던 불안 관리였다. 수많은 미디어에서 메르스 관련 보도를 했지만 메르스가 가진 위험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관련 기관들의 불협화음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우리 사회가 전염병이라는 공포를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많이 미흡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종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은 바로 불안과 공포를 극복한 이들이었다. 부족한 역학적, 임상적 정보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은 전문가들과, 의료 일선에서 전염의 공포를 극복하고 최선을 다 해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 병원에서 오가며 마주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명(無名)의 헌신을 통해 메르스는 극복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습 학생들은 선배 의사들이 의연히 대처하는 모습을 직접 곁에서 보면서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은 예전 삼풍백화점 사건부터 최근의 세월호 사건까지, 나라에 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의료의 버팀목이 되고 사회의 불안을 일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병원이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우리 병원은 항상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던 고대의대의 정신을 다시금 빛낼 수 있었다. 특히 필자가 실습했던 고려대 구로병원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으로는 처음 메르스 환자를 받은 곳이었다. 환자들과 병원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태에 동요하고, 불안해할 수 있었음에도 구로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병원의 본질을 다시금 강조하고, 실습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의료인의 자세와 사명을 각인시켜주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다른 의과대학보다도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이 클 것이다. 메르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실습을 돌면서, 전염병이 가진 공포와 파급력을 직접 경험하였고, 가까이서 뵐 수 있던 우리 선배 의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불안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 의료인이 될 의대생들은 불안이 난무하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불안을, 사회의 불안을, 또 자신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답을 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학부모의 편지

학부모 **최은배**
(의학과 2. 최재영 아버지)

돈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길...

항상 어리기만 하고 받기만 하던 우리 아들이 어엿한 예비 의사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이를 통해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살아가는 데에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뿌듯한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공부하고, 동료들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어 다 같이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를 일구어나가는 데에 든든하게 기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을미년의 절반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질병으로 온 나라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머나먼 서아시아의 몇 나라에서 생긴 질병이 왜 우리나라에 퍼져 아까운 생명이 스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왜 병을 고치는 병원이 도리어 병을 옮기는 장소가 되어 병원을 찾았다가 병을 가져야 했는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주게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이 폐쇄되고 의사들이 감염되는 상황에서도 생과 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환자 치료에 앞장선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언론지상에는 지난 주 남미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곳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돈의 지배에 고삐 풀린 탐욕을 4세기 로마 주교의 말을 빌려 '악마의 배설물'로 비유했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도, 돈의 논리에 이끌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일마저 직원들을 직접 쓰지 않고 외주(도급)으로 돌리고,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공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 병원을 등한시하고 돈벌이에 내몰며, 심지어 공공 의료원을 폐원시키는 바람에,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제대로 격리하지 못하고 민간 병원에서 민간 의료진에게 무책임하게 맡긴 것 때문에 악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료인 또한 '돈'의 논리에 얽매이고 '돈'에 합당하게 행동을 결정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챙기지 않고 평생을 아픈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청년 의사의 다짐이 아름답게 노년에 꽃피울 수 있게 젊은 시절의 자신을 탁마하고, 공동체의 어두운 곳을 항상 챙길 줄 아는 늠름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의사로 성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맺습니다.

의료인부터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겠지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겁게 의사 수련 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고대의대 초기역사 인물열전 (2)

1편 로제타홀 | 2편 박에스터 | 3편 김탁원, 길정희 | 4편 김종익

민족의 의대, 고대의대 초기역사 인물열전

우리 의과대학은 사회의 가장 어려운 민초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해왔다. 고대의대의 시작은 구한말 여자가 남자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모성보호'와 '민족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여의사를 키워달라는 민초의 요구에 대한 시대적 응답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뿌리로 인해 산업화 시대에도 우리 의대는 그 시대 어려운 약자의 요구가 있는 곳에 병원을 열었다. 의료소외 지역이었던 구로공단, 반월공단(안산), 농촌지역인 여주에 병원을 개설한 것은 다른 대학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행보였다. 우리의 역사에 의료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의 전통을 뿌리를 품게 한 인물들이 있다.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자랑스런 고대의대 역사에 밀알이 된 초기 역사 인물들의 이야기를 4편의 시리즈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박에스터 (1876년~1910년)

박에스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이자 최초의 여성과학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로서는 1892년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서재필(徐載弼)과 1899년 일본에서 의대를 졸업한 김익남(金益南)에 이어 박에스터가 3번째 의사로 알려있으나, 서재필은 임상의로서 일을 한 적이 없고, 김익남은 의대는 졸업했으나 의학교 교관과 군의군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실제 민간인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박에스터가 최초이다. 본명은 김점동(金點童)이며 에스터는 세례명이고 박은 남편의 성을 따른 것이다. 박에스터는 1876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홍택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의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과 인연이 닿았고 그로 인해 1886년 10세 때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신학문과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

박에스터가 의사가 되는 꿈을 갖게 되고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로제타 홀과의 운명적인 만남 덕분이었다. 박에스터는 영특하고 영어에 능해 1890년 10월에 보구여관(保救女館)에 새로이 부임한 로제타 홀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여자 환자가 남자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당시 유교적 관습을 목도한 로제타 홀은 여의사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달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의사 양성에 뜻을 두고 5명의 여학생을 조수로 쓰면서 기초의학을 가르쳤다. 이 5명중 하나였던 박에스터는 로제타 홀이 언청이 아이를 수술하여 고쳐주는 것을 본 후에 크게 감동을 받아 자신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로 굳게 마음을 먹게 된다. 1894년 로제타 홀의 남편 윌리암 홀이 과로로 사망하자 둘째를 임신 중이던 로제타 홀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미국으로 일시 귀국하게 된다. 이때 박에스터는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데려가 달라고 청했고, 로제타 홀은 기꺼이 박에스터를 미국행에 동반하였다. 박에스터의 남편 박유산은 윌리암 홀의 마부로 일했던 인물로 신여성 박에스터가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도미하여 스스로 희생하며 헌신하였다. 박에스터는 로제타 홀의 도움으로 1896년 10월 1일 볼티모어여자의과대학(현 존스홉킨스대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최연소 입학으로 알려져 있다. 남편 박유산은 박에스터를 위하여 식당과 농장에서 노동일을 해가며 뒷바라지를 했다.

먼 타향 미국에서의 의학공부의 길은 험난하였다. 너무 힘들면 그냥 조선으로 돌아오라는 로제타 홀의 얘기에 박에스터는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포기하면 다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포기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박에스터는 드디어 1900년 6월에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졸업시험을 3주 앞두고 남편 박유산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박에스터는 남편의 죽음 앞에도 미국에 온 뜻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마지막 졸업시험공부를 계속하였다.

박에스터는 졸업한 그해 11월에 바로 귀국하여 보구여관에서 로제타 홀과 함께 진료를 시작하였고 1903년부터는 평양의 윌리엄 홀 기념병원(기홀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녀는 10개월 동안 3,000명 넘게 치료하는 등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다. 쉬는 날에는 시골로 병자를 찾아 다녔다고 하는데, 주로 가마를 타고 다녔지만 산골에는 당나귀를 타고라도 환자를 찾아갔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과중한 진료 업무 속에 몸이 허약해져 1909년 결핵에 걸렸고, 1910년 4월 13일 아깝게도 34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훗날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닥터 홀의 조선회상'의 저자)이 의사가 되어서 결핵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최초로 결핵요양원을 세우고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는 등의 결핵 퇴치 사업을 하게 되는 것에도 어린 시절 이모처럼 따랐던 박에스터에 대한 그리움이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박에스터를 고대의대 초기역사의 중요한 인물의 한 명으로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고대의대의 초기 설립 정신이었던 모성보호와 민족생존을 위한 우리 민족의 요구와 로제타 홀의 노력이 합쳐져서 탄생하게 되는 첫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 역시 여성교육에 큰 관심이 있었으며 실제 로제타 홀과 함께 맹아교육과 간호교육에 기여하여 고종황제의 훈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그녀가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으면 고대의대의 초기역사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헌정 교수(안암병원)

초기 호의역사를 재조명하며

재활의학교실 **김동휘** 교수 (안산병원 재활의학과)

일본에 의해 빼앗기고, 우리들에 의해 사장되고 잊혀져 있던 초기 고대의대 역사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비전이 녹아 있는 우리의 역사
로제타 홀, 김탁원과 길정희, 그리고 우석 김종익...

모성보호, 민족보건이라는 민초의 요구에
생명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물질로 함께 했던 그 분들
'여의사 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 갔던 그 분들,
그 분들의 땀과 피가 지금도 이 땅에 흐르고 있고, 고대의대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뀐 이름만큼 이 땅의 아픔과 함께 했던 역사
민족의 대학 고려대학교를 만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가치 우리의 비전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혜화병원, 구로병원, 여주병원, 안산병원, 그리고 안암병원...
우리는 시류를 좇아 서지 않았습니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곳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곳에 고대의대가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 김탁원과 길정희, 그리고 김종익
알면 알수록 알리고 싶고 마음에 새기고 싶은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우리의 역사,
그러나 지금까지 가리워졌던 가슴 아픈 역사.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비전도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슴에 다시 태어나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그 분들을!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역사
그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고대의대가
민족과 세계를 섬기게 될 때
하늘 나라에서 웃고 계실 그 분들을 바라봅니다.

이제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호랑이와 같이
민족를 품고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호의(虎醫)들의 모습을 봅니다.

민족의 요구와 세계의 부름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어린 호의들을 꿈꾸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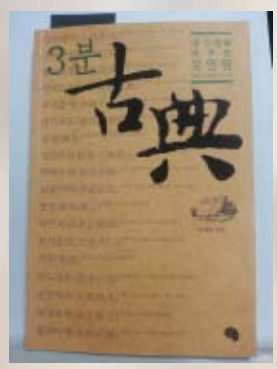
우리의 정신과 가치가 더 큰 꿈으로 다가올 그 날을 소망합니다.

1928 1938

아사라면 이 책은 꼭 읽어라

외과학교실 **엄준원** 교수 (안산병원 대장항문외과)

3분 古典 내인생을 바꾸는 모멘텀 (momentum)



출근길 운전하면서 듣는 KBS 제1라디오 시사고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강의는 동양철학박사 石泉 박재희 선생으로 그 구수한 목소리가 지금도 떠 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분이 진행을 맡아 들을 수가 없다. 박재희 박사의 아침 한 마디가 다시 그리워진다. 아침 3분 강의를 듣고 나면, 오늘 하루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지,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고, 듣지 못한 날은 오늘 시작부터 무언가 빠진 느낌이었다.

2010년 11월 7일 "3분 고전"이라는 책으로 방송에서 발표한 원고를 다시 책으로 출판했다. 시간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시 읽을 때 마다 급한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고전을 통해 현재 삶의 지혜를 주고, 또다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준다. 방송 내용 중 필자가 선정한 120여개의 짧은 고전 메시지이다. 책 본문 중 "맹자孟子의 행복한 인생론" 의 한 구절이다. 중략… 군자에게는 인생의 행복이 세가지 있다 (君子有三樂) …중략… 첫째, 부모께서 모두 살아 계시고 형제들이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한 것이다. 둘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보아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셋째, 천하의 똑똑한 영재를 모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

자칫 각박해질 수 있는 의료 현장에서 우리를 다시 뒤돌아보고, 앞으로 정진하는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도서로 강력히 추천한다. 아 참 그리고, 한 번에 다 읽으려면 못 읽는다. 하루 3분씩만 투자하시기 바란다.

인사동정

구로병원, 한국존슨앤드존슨 외상전문 교육센터 오픈 세계적인 외상전문의 육성 프로그램 제공

고려대구로병원(원장 백세현)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외상전문 교육센터'가 7월17일(금) 오픈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외상전문 교육센터'에서는 외상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해 정형외과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 외상 치료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며,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교육센터와 협력해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수준의 외상전문의 육성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수련병원'으로 선정된 고려대 구로병원 중증외상교육센터(센터장 오종건)에는 외상골절 및 골수염 치료분야 국내 · 외에서 명의로 손꼽히는 정형외과 오종건 교수를 비롯해 외상치료 전문의가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외상전용 중환자병상 및 수술실 등을 갖춘 것은 물론 응급의료센터, 정형외과, 외과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 유기적인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외상전문의 육성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유럽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서 '그릴로 상' 수상
'형광물질 이용한 영상유도 폐구역절제술' 연구 학회 사상 한국인 첫 수상사례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가 지난 5월31일부터 6월3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23차 유럽흉부외과학회 학술대회(23rd European Conference on General Thoracic Surgery)'에서 '그릴로 상(Grillo Prize)'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수술 중 근적외선 형광물질을 이용한 영상유도 폐구역절제술(F-058 Intraoperative merged fluorescence image-guided pulmonary segmentectomy)'이라는 주제로 '실험적 혁신 기술' 세션 중 최우수 논문 초록에 수여되는 그릴로 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 초록은 201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중개연구 중점연구사업'으로 선정되어 고려대학교 생체의공학과 김법민, 최연호 교수와 함께 진행해 온 전임상 연구의 일환으로, 김 교수가 총괄연구책임을 맡아왔다. 김 교수는 "이 연구는 폐암 수술 과정에서 형광물질을 이용한 영상유도를 통해 절제 범위 및 합병증을 최소화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아직 전임상 단계이지만 향후 임상적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유럽흉부외과학회(European Society of Thoracic Surgeons, ESTS)는 1993년에 설립된 학회로 매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흉부외과 써전들이 모여 최신 지견을 나눈다. 학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학술대회에서 한국인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산병원, 차세대 실험동물 '제브라피쉬' 중개 연구 심포지엄 개최 – 제브라피쉬를 통한 연구 활성화로 연구중심병원 신청 추진에 박차 –

안산병원이 차세대 실험동물로 각광 받는 제브라피쉬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연구중심병원 신청을 위한 준비를 이어갔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6월25일(목) 소강당에서 연구교원, 의생명연구센터 연구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브라피쉬(Zebrafish) 중개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려대 안산병원 연구중심병원 신청 추진연구회'에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자들은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제브라피쉬의 연구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을 교류했다. 차상훈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제브라피쉬는 척추동물로 인간의 유전자 구성과 매우 흡사하여 최근 다양한 질환의 기전 연구 및 신약 개발을 위한 실험동물로 주목 받고 있다"며 "제브라피쉬를 통한 연구 활성화로 고대 안산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대 안산병원은 지역유일의 연구혁신 대학병원으로서 안산사이언스밸리(ASV)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보건의료기술(HT) 관련기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고대 세종캠퍼스 과기대, 약대 등과 연계하여 보건의료기술 R&D 광역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치과 전상호 교수팀, 시린이 극복하는 치료제 개발 와인, 해조류, 과일, 식물 등의 원재료 사용해 인체 무해 탄닌-철 화합물로 손상된 치아에 코팅막 형성

고려대 안암병원 치과 전상호 교수팀이 서울대학교 치과 생체재료과학교실 안진수 교수 및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융합생명공학부 황동수 교수와 공동으로 해조류와 과일 등에 주로 들어있는 물질을 이용한 '시린이 치료제'를 개발했다.

연구팀은 해조류나 와인, 과일, 식물 등에서 공통으로 찾을 수 있는 탄닌이라는 화학성분이 체내에 존재하는 철과 결합해 치아 외벽의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물 속에서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착안해 치료제를 개발했다. 개발한 치료제는 단시간에 손상된 치아의 표면에 코팅막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재생효과까지 뛰어나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안암병원 치과 전상호 교수는 "이번 치료제는 와인, 초콜릿, 해조류와 같은 식품에서 원료를 얻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여 치약 및 가글과 같은 생활제품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생명공학기술사업의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기술개발'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오지연 교수 미국 흉부학회 국제회의서 '닥터 슈레더네일 메모리얼 어워드' 수상

구로병원 호흡기내과 오지연 교수가 5월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 덴버에서 개최된 '2015 미국흉부학회 국제회의(2015 American Thoracic Society International Conference, ATS 2015)'에서 '닥터 슈레더네일 메모리얼 어워드(Dr. Sreedhar Nair Memorial Award)'를 수상했다.

이 회의는 매년 1만 5천여 명의 전 세계 흉부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지견을 논하는 국제학술회의로 이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자랑한다. 오 교수는 '폐기종을 동반한 폐섬유증 환자의 급성 악화 예측변수 (Predictors Of Acute Exacerbation Of Combined Pulmonary Fibrosis And Emphysema)'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이번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편, 오 교수가 수상한 '닥터 슈레더네일 메모리얼 어워드'는 폐기종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학발전에 큰 업적을 세운 닥터 슈레더네일(Dr. Sreedhar Nair)을 추모하고자 올해 '미국 폐기종재단(National Emphysema Foundation)'이 신설한 상으로, 오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이 상을 받게 됐다.

8~9월 학사일정

	일정	학사내용
8월	3(월)~7(금)	2학기 수강신청
	3(월)~14(금)	의학과4 : 임상의학능력성취도 평가
	17(월)	의학과2학년 개강
	20(목)	휴.복학원서 접수(~9.21)
	20(목)~27(목)	2학기 등록
	26(수)~27(목)	신입,편입,재입학생 수강신청
	31(월)~9.21(월)	조기졸업/부전공신청
	31(월)	의예과, 의학과1학년 개강
9월	3(목)	생각의 향기
	18(금)~19(토)	정기고연전
	21(월)	휴.복학 만기일
	21(월)~22(화)	복수전공 신청
	10(목)~11/23(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26(토)~29(화)	추석연휴
	22(화)	의학과2 : category 5

미주교우안내

미주지역 기부방법 –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Korea University, Inc.)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은 1997년 10월 28일자로 설립되었으며, 미 연방에 등록된 Tax-exempt organization입니다. 미국 납세의무자께서 고려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기부하실 경우 IRS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DDRESS: 15 Autumn Hill Road, Princeton, New Jersey 08540, United States
EMAIL: info@ifku.net
(Attn : Wan-Mo Kang, Chairman 1-609-895-6638 / wkang@foxrothschild.com)
고려대학교 국제재단 홈페이지 : http://www.ifku.net